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손보업계, 자동차보험료 인상 본격화

- 최근 도교해상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, 다른 주요 손해보험회사들도 연내 1~2% 수준의 인상 계획을 발표함.
 -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도교해상은 올해 7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약 1% 인상한 데 이어, 미츠이스미토모해상도 10월 신상품 출시에 맞춰 보험료를 평균 1% 올리기로 최종 결정함.
 - 이에 앞서 올해 4월 통합한 아이오이손보, 닛세이도와손보와 중소형사인 니혼고와손보도 올해 말까지 자동차보험료를 1~2%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발표했으며, 손보재팬 역시 내년 초 인상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.

-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작년 단행된 요율인상이 반영된 조치로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시장 침체 장기화로 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음.
 -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손해보험 사업의 주요 수익원인 자동차보험 부문이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시장침체가 장기화되자 작년 7월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의 요율 인상(5.7%)에 따른 대응 조치임.
 - 최근들어 급증하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, 신규 수요 계층인 젊은층의 차량 구입 감소 및 소형차 구입 증가, 저가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 호조, 무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하락 추세에 있어 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보험료 인상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.
 - 보험료 인상에 따른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올리기 보다는 주로 보장내용 축소와 같은 간접접적인 방법으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예상임.

(각 사 홈페이지, FujiSankei Business | 7/22)